

# 활용형과 음운론\*

김봉국(부산교대 · 국어생활연구원)

## 〈목 차〉

- |                     |                   |
|---------------------|-------------------|
| 1. 서론               | 4. 활용형의 어휘부 등재 문제 |
| 2. 음운론적 환경의 정밀화 문제  | 5. 결론             |
| 3. 패러다임의 체계와 단위의 문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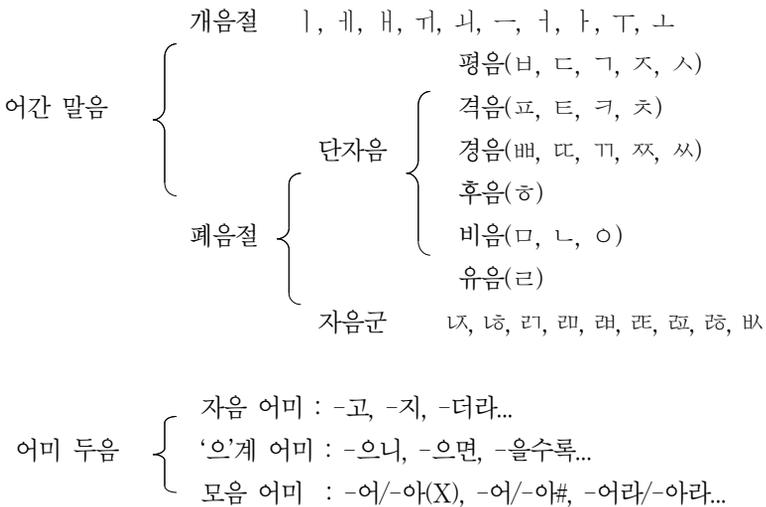
## 1. 서론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특징이 있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기 때문에 명사와 조사,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소 경계에서 많은 음운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글은 특히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을 대상으로 음운론 연구에서 앞으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어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공시론적 음운현상의 기술에 있어서 좀더 정밀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둘째는 활용 패러다임과 관련된 문제, 셋째는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되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2. 음운론적 환경의 정밀화 문제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활용형이 형태소를 경계로 이루어진다. 이때 형태소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어간과 어미의 가장 중요한 음운론적 환경은 어간의 말음과 어미의 두음이다. 대부분의 음운론 관련 연구에서는 어간 말음이나 어미 두음의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하여 음운현상을 기술하여 왔으며, 그러한 음운론적 환경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운론적 환경 중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미 두음의 환경이다.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경우에는 어미 두음의 음운론적 환경이 자음 어미, '으'계 어미, 모음 어미에 따라서 음운현상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어미 두음의 환경을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음운현상의 기술에서 유의미한 일이며, 아울러 어간 기저형의 출현 환경을 일반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자료를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면 어미 두음의 음운론적인 환경을 자음어미, '으'계 어미, 모음 어미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 (1) 흘루구, 흘르지 ; 흘르니, 흘르믄 ; 흘러(流) <경기>  
 (2) 가구, 가지 ; 가니, 가면 ; 가도, 가라~가:라 <서울, 강원 영동, 경북 북부>

(1)의 예는 김봉국(2003:172)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어간말음절이 ‘르’로 끝날 경우에는 어미 ‘-구’ 앞에서 ‘루’로 교체된다(흘르구>흘루구).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하 자음 어미) 중 ‘-구’에서만 어간 이형태가 각각 ‘흘루-’이고, 나머지 어미들에서는 어간 이형태가 ‘흘르-’로만 실현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형태인 ‘흘루-’와 ‘흘르-’를 공식적인 규칙으로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공식적인 규칙으로 도출해 내려면 ‘흘르--+구’의 결합에서 후행하는 어미 ‘-구’의 원순모음 ‘우’에 의한 역행적 원순성동화를 인정하여 ‘흘르구→흘루구’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김경아(2000:294)에서 제시된 원순성동화의 예들이 대부분 순행적 동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역행적 원순성 동화를 공식적인 음운규칙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흘르-’와 ‘흘루-’는 형태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임을 알 수 있다.

(2)의 예는 김봉국(2002:132)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명령형 어미일 때 강릉이나 삼척 지역어에서는 ‘저라[LH<sup>h</sup>RL](저+어라), 쯤라[LH<sup>h</sup>RL](쯤+어라), 처라[LH<sup>h</sup>RL](치+어라)’와 같이 상승조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가 결합한 활용형에서만 상승조로 실현되는 이유는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아도 → 가도[LH<sup>h</sup>]’처럼 모음이 연속될 경우에 모음 ‘아’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가+아라 → 가아라[LHL]’의 경우는 모음 ‘아’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음운론적인 환경임에도 명령형 어미인 ‘-어라/-아라’에서는 활용형의 성조형이 달리 나타나는 사실은 임석규(1999:76)의 경북 영주 지역에서 실현되는 ‘가--+아도 → 가도[HH], 가--+아라 → 가라[L·HH]’와, 최명옥(2000:31)의 동북방언이 반영된 연변 자료에서 실현되는 ‘주--+어두 → 쥐두[LH], ‘주--+어라 → 쥐라[L·HL]’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유필재(2001:114)의 서울 지역 자료에서도 보인다.

- (3) 가. 막찌 ; 막니, 막으면 ; 막아도, 막아라, 막아요, 막어# <서울, 경기>  
 나. 허고(허+고), 허서(허+어서), 히라(히+어라), 혀# <화순>

다. 매:구, 매:지 ; 매:니, 매:면 ; 매:두, 매:라, 매:요, 마:# <중부>  
 하구, 하지 ; 하니, 하면 ; 해:두, 해:라, 해:요, 하:# <중부 일부 지역>  
 되구, 되지 ; 되니, 되면 ; 돼:두, 돼:라, 돼:요, ㄷㅑ[twya:]# <중부>  
 라. 먹찌 ; 먹으문 ; 먹어도, 먹어요, 먹아#, 먹었아#, 먹겠아# <강릉>

(3)의 예들은 모두 반말체 종결어미 ‘-어/-아’가 관련된 자료이다. (3가)는 서울 지역의 자료인데,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어간 ‘막-’은 어미로 ‘아(X)’와 결합하지만, 반말체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에만 어미로 ‘-어’가 결합하는 경우를 보여주며, (3나)는 정인호(1995:56)에서 제시된 전남 화순 지역의 자료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히서, 히라’의 활용형을 보여 어미 ‘어’가 탈락된 반면에 반말체 종결어미와의 결합형에서는 ‘혀:#’의 활용형을 보여 반모음화가 적용되어 적용된 어미에 따라 적용되는 음운규칙이 차이를 보인다.

(3나)와 평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3다)에서도 보인다. 적용되는 음운규칙에서 차이를 보여,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모음 어미의 환경이 ‘-어/-아(X)’일 때 어간 ‘매:-’와 결합하여 ‘매:두, 매:라, 매:요’와 같은 활용형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반말체 종결어미로 문장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마:#’와 같은 활용형을 보여 준다. 김봉국(2010)에서는 이를 ‘상향이중모음화’라 명명하고 장모음 환경에서 공식적인 규칙으로 ‘애:→야:#’규칙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결국 (3가-다)는 용언의 어간과 반말체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모음 어미라는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임에도 적용되는 음운규칙이 상이한 예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3라)는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중에서 반말체 종결어미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 활용형이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4) 가. 막- : 막아라, 막아요, 막아# ; 막았어#, 막겠어#, 막았었어# <서울>  
 떡- : 떡어라, 떡어요, 떡어# ; 떡었어#, 떡겠어#, 떡었었어# <서울>  
 나. 막- : 막어라, 막어요 ; 막아#, 막았아#, 막겠아#, 막았었아# <강릉>  
 떡- : 떡어라, 떡어요 ; 떡아#, 떡었아#, 떡겠아#, 떡었었아# <강릉>

(4가)는 많은 방언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서, 용언 어간과 직접 결

합하는 어미 ‘-어/-아(X)’에서는 교체가 나타나며, 반말체 종결어미가 선어말 어미 다음에 결합하여 문장 끝에 놓일 때는 항상 고정적인 형태인 ‘-어’만 나타난다.<sup>1)</sup>

강릉지역어 자료인 (4나)에서 용언 어간과 직접 결합하는 어미인 ‘-어라, -어요’에서는 모음 어미 ‘-어’가 선택되는 반면, 반말체 종결어미가 문장 끝에 놓일 때는 항상 고정적인 형태인 ‘-아’만 취한다. 즉 (4나)의 예는 이 지역어에서 일반적인 ‘-어/-아’ 교체 양상에 비춰 봤을 때 용언 어간과 결합하는 모음 어미로 ‘-어’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말체 종결어미라는 형태적인 제약에 의해 ‘먹이#, 먹었이#, 먹겠이#, 먹었었이#’ 등의 활용형이 나타나는 것이다.<sup>2)</sup>

- (5) 가. 하고, 하지 ; 하니, 하면 ; 하여도, 하여라, \*하여#, \*하여요  
 나. 이고, 이지 ; 이니, 이면, ; 이야~이라, 이어도~이라도, 이어요~이에요/예요

(5가)의 예는 주로 문어에 나타나는 어간 ‘하-’의 활용 패러다임인데,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중 특히 반말체 종결어미와 해요체 종결어미에서 활용형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보여 준다.

(5나)의 예는 계사 ‘이’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데, 이 중 어미 ‘-어요’가 결합한 활용형 ‘이에요’는 공식적 규칙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이다.

- (6) 가시고, 가지지 ; 가시니, 가시면, 가셔도, 가셔#, 가셔요~가세요

(6)은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어미 ‘-어요’의 결합형으로 불규칙적인 양상을 띤다. 보통 선어말어미 ‘-시-’와 어미 ‘-어(X)’가 결합하면 ‘가셔, 가

1)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대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았었-’인데, 용언 어간과 직접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경우에는 ‘-었/았-’의 어간말음절 모음에 의해 교체가 나타나지만 용언 어간과 직접 결합하지 않는 후행 요소는 고정적인 형태 ‘-었-’으로만 나타난다.  
 2) (3다)와 (4나)의 예를 고려한다면 활용형 ‘먹어요’를 ‘먹-+-어요’로 분석하는 방안과 ‘먹-+-어’에 청자를 대우하는 요소인 ‘요’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하는 방안 중 전자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서, 가셨다'처럼 반모음화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미 '-어요'가 결합하게 되면 '가세요'뿐만 아니라 '가세요'도 나타난다. '가세요'는 반모음화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가세요'는 '가시-'와 어미 '-어요'가 결합하여 '에[e]' 축약 규칙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 축약은 공시적인 규칙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요체 어미 '-어요'와의 결합에서만 '에'가 축약되는 형태적인 제약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 3. 패러다임의 체계와 단위의 문제

어간과 어미의 활용에 의해 형성된 결합형인 활용형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단위이다. 활용형은 언어 변화의 통시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통시적인 정보가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물인 활용형을 통해 공시론적인 해석을 하거나 통시론적을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개념이 곡용형 또는 활용형들의 집합인 패러다임이다. 기저형의 변화인 재구조화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철의(2001:13)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기 때문에 곡용형이나 활용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활용형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활용 패러다임 또한 복잡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활용 패러다임을 정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활용의 어형 변화를 보여주는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경우와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패러다임은 어간에 여러 어미들이 결합하여 활용형을 형성할 때 활용 양상이 일부 어미에 제한되지 않고 두루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사 어간 '가-'는 어미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가고, 가지, 가니, 갈수록, 가야, 가더라, 가요...'와 같은 활용형으로 나타나, 활용 패러다임의 불완전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결합하는 어미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완전 동사인 '불구하-'는

항상 어미 ‘-고’와만 결합하지, 그 외의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아 항상 활용형 ‘불구하고’만 나타남으로써 활용 패러다임이 불완전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이는 용언을 흔히 불완전용언이라 부른다.<sup>3)</sup>

패러다임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용언에는 주로 동사, 형용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갖는 경우가 또 있다.

먼저 동사 어간 ‘가-’의 활용 패러다임을 생각해 보면, ‘가-’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가-’의 활용형 및 패러다임

- 자음 어미 : 가고, 가지, 가더라...
- ‘-’계 어미 : 가니, 가면, 가니까, 갈수록...
- 모음 어미 : 가서, 가도, 가라, 가요...

(8) 가. 가시-, 갔-, 가겠-, 가옵-...

나. 가시었-(가셨-), 갔었- ; 가시겠-, 갔겠-, 갔었겠-, 가시었겠-...

(9) 가. 가더-<sup>4)</sup>

나. 가시더-, 갔더-, 갔었더-, 가겠더-, 가옵더-...

(10) 가. 가리-<sup>5)</sup>

나. 가시리-, 갔으리-, 가겠으리-...

그런데 어미가 발달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동사 어간 ‘가-’에 선어말어미 등이 직접 결합하여 (8가)와 같은 ‘가시-, 갔-, 가겠-, 가옵-’의 활용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여 (8나)와 같은 ‘가시었-(가셨-), 갔었-, 가시었었-, 가시겠-, 갔겠-, 가시었겠-(가셨겠-), 가시옵-, 가시옵겠-’ 등의 활용 패러다임이 나타는 경우가 있다.<sup>6)</sup>

3) 불완전용언을 불구동사 또는 불구형용사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였지만, ‘불구’라는 단어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용언으로 쓰고자 한다.

4) ‘가더-’의 활용 패러다임에서 ‘가더니, 가던, 가더라, 가더라도, 가더면, 가더냐’ 등은 실현되지 만 “가더고, \*가더오(일부 방언에서는 실현되기도 함.)” 등은 실현되지 않아 (8)의 예보다는 분포상의 제약이 좀더 있다.

5) ‘가리니, 가리라, 가리라던’ 등의 활용형만 나타나 분포상의 제약이 심하게 나타난다.

6) 남기심·고영근(2012)에서는 선어말어미의 분포가 넓은가 좁은가에 따라 선어말어미들을

이들 중 (8)의 예에서 ‘가시-, 갔-, 가겠-, 가옵-’등에 분석되는 선어말어미나 ‘가시었-, 가시었겠-, 가시옵-’ 등에서 분석되는 선어말어미의 결합형은 분포가 넓어 어말어미와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하는 ‘개방형 패러다임’의 양상을 띤다. 반면 (10가)의 어간 ‘가-’와 직접 결합한 ‘가리-’나 (10나)의 선어말어미 결합형과 결합한 ‘가시리-, 갔으리-, 가겠으리-’는 분포가 좁아서 어말어미와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폐쇄형 패러다임’의 양상을 띤다.

(8-10)의 예에서 활용 패러다임의 완전성 여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8)은 거의 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며, (9)는 (8)보다 일부 어말 어미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거의 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10)은 일부 어말어미와만 결합하는 제한적인 양상을 보여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이런 점 때문에 (10)과 같은 교착적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형태인 ‘-리니, -리리’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어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활용 양상을 기술하게 된다면 이때 (10)의 예는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갖게 되어 새로운 언어학적 단위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

활용형의 집합인 패러다임을 사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특정한 용언 어간의 패러다임, 예를 들자면 ‘가-’의 활용 패러다임이라든지 ‘먹-’의 활용 패러다임이라든지 어간을 기준으로 활용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임석규(2004:13)에서는 (8)의 예를 모두 ‘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의 하위 패러다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가-’의 패러다임이라고도, ‘가-’의 하위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기 힘들다. 또한 ‘가시-’나 ‘가시겠-’ 등의 활용형 집합을 ‘활용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활용’이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나 ‘가시겠-’에 대해서 활용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시-’의 패러다임이나 ‘-시겠-’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패러다임을 기술할 때 편의상 이들을 명명할 필요가 있는데, ‘가시-’나 ‘가시겠-’ 등은 엄밀히 말하자면 선어말어미 또는

---

두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분포가 넓은 선어말어미로 ‘-시-, -는-, -었-, -겠-, -옵-’을 들었고, 분포가 좁은 선어말어미로 ‘-비-, -느-, -더-, -리-, -니-, -것-’을 들었다. 이 중 ‘-는-’은 평서형과 감탄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분포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분포가 넓은 선어말어미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는-’을 제외하면 분포가 넓은 선어말어미는 이 글에서 언급한 개방형 패러다임과 대체로 일치한다.

선어말어미의 결합형의 패러다임이라고 불릴 만한데, 여기서는 ‘가시-’나 ‘가시겠-’ 등이 어간은 아니지만 어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 어간’이라고 잠정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10)의 예가 갖는 성격을 논의할 때 (8-9)의 예보다 좀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활용의 어형 변화를 고려했을 때, (10)의 유사 어간은 비생산적인 활용을 하여 결합하는 어말 어미가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즉 ‘가리니, 가리라, 가리다’처럼 유사 어간 ‘가리-’에 어말 어미로 ‘-니, -라, -다’ 정도가 결합하여 그 분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불완전용언과 그 성격이 비슷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형태론의 연구에서 불완전활용을 보이는 대상으로 동사, 형용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10)의 예와 같이 선어말어미와 어말 어미의 결합이나, 선어말어미와의 결합형과 어말 어미의 결합(이 글의 용어로는 유사 어간과 어말 어미의 결합)을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완전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불완전활용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유사 어간은 언어학적인 단위의 성격을 갖는 듯이 보인다.

#### 4. 활용형의 어휘부 등재 문제

조어법의 결과물인 합성어나 파생어가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병근 1975), 합성어나 파생어의 특성상 특정한 단어형성규칙이 생산성을 잃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화석형을 만들어 내거나 어떤 형태가 사라지면서 합성어나 파생어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 화석화된 형태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어의 형태론 연구 중 특히 어휘부의 등재와 관련된 연구는 화석화된 형태가 포함된 합성어나 파생어에 주목하여 왔고, 이러한 경향이 주류를 형성하기도 하였다.<sup>7)</sup> 이 글은 어휘부 등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되, 형태론 연구

7) 최근 어휘부 등재 논의의 경향과 쟁점에 대해서는 안소진(2012)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어휘부 등재 연구와 관련하여 대상 자료를 파생어에 국한하지 말고 ‘활용형의 등재, 접사의 생산성과 파생어 빈도의 상호 관계, 관용표현과 언어의 등재’로 그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서 주목했던 합성어나 파생어 문제보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에 대한 어휘부 등재 문제에 주목하기로 한다. 합성어나 파생어에 비해 활용은 아주 생산적이며 규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형의 화석형에 대한 논의는 합성어나 파생어의 화석형에 대한 논의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에 따른 어휘부 등재 논의 또한 많지 않았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은 형태소를 경계로 교체가 일어난 결과물이다. 이렇게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교체 문제를 공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진호(2008:145-170)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순수 음운규칙을 설정하는 방법, 비음운론적인 제약을 가진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 복수기저형을 설정하는 방법, 형태소의 결합형을 그대로 어휘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4장에서는 활용형의 어휘부 등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복수기저형의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복수기저형과 활용형의 어휘부 등재 문제는 화석화된 활용형들이 굳어진 형태로 존재하여 공식적인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복수기저형은 어휘부에 음운론적인 환경이 예측가능한 기저형이 등재되는 반면 그러한 환경이 좀더 제약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활용형 자체가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sup>8)</sup>

기존의 연구에서는 활용형의 어휘부 등재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예를 제시하였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동일한 예를 복수기저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문제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의해 보기로 한다.

- (11) 가. 데리고, 데리러, 데려  
나. 이웃과 더불어  
다. 서슴지 않고, 서슴지 말고
- (12) 가. 어깨를 가늘게 떠다

---

8) 활용형의 어휘부 등재와 관련된 논의로는 김성규(1989), 채현식(1994), 최전승(1997), 이진호(2002), 신승용(2007), 이진호(2008) 등이 있다. 이 중 이진호(2008:158)에서는 활용형을 어휘부에 등재하기 유형으로 '공식적인 형태 분석이 어려운 경우, 복수기저형 설정과 관련된 조건을 어기는 경우, 어간이나 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가 극히 제한된 경우, 보충법에 의해 활용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로 나누었다.

- 나. 지나가는 말투  
 다. 그 사실로 미루어

(11)과 (12)는 모두 불완전용언의 예인데,<sup>9)</sup> (11)은 어휘의 의미에 관계없이 활용 패러다임이 불완전한 경우로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가 아주 제한되어 나타난다. (11) 가의 어간 ‘데리-’는 일부 특정한 어미인 ‘-고, -러, -어’와만 결합하고, (11) 나 의 어간 ‘더불-’은 어미 ‘-어’와만 결합하며, (11다)의 어간 ‘서슴-’은 어미 ‘-지와만 결합하여 분포상의 제약이 심한 양상을 보여 준다. 다만 (11나)는 (11가)와는 달리 불완전동사 ‘더불-’이 특정한 조사 ‘와/과’만 결합하여 격을 지배하며, (11다)는 부정 형태와 항상 공기하는 통사적인 특징을 갖는다. (11)의 예와 관련하여 어휘부 등재의 단위를 고려한다면 등재의 단위가 (11가)는 활용형이라 할 수 있지만, (11나)는 ‘와/과 더불어’처럼 ‘조사+활용형’이며, (11다)는 ‘활용형+부정 형태’가 되어, 적어도 (11나)와 (11다)는 활용형보다 큰 단위가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12)는 어간의 여러 가지 의미항목 중에서 일부 의미항목에서 활용 패러다임이 불완전한 양상을 띠는 예이다. (12가)의 어간 ‘가늘-’은 ‘움직이는 정도가 아주 약하다’의 의미일 때 어미 ‘-게’와만 결합하고, (12나)의 어간 ‘지나가-’는 ‘별다른 의미 없이 하다’의 의미일 때 관형사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보인다. (12다)의 동사 어간 ‘미루-’는 의미항목 중 ‘다른 것을 비추어 헤아리다’의 의미일 때만 특정한 어미 ‘-어’와 결합하며, 동시에 선행하는 특정한 조사인 ‘-으로’와 결합하는 통사적인 제약이 있다. (12다)의 어휘부 등재 단위는 활용형보다 좀더 큰 ‘조사+활용형’이다.

(13) 가. 푸고, 푸니, 퍼(푸+-어)

나. 알고, 알지, 알면, 아니까

9) (11)과 (12)의 예에 대하여 유현경(1996:233)에서 각각 ‘불완전형용사’와 ‘굳은 관형사형/굳은 부사형’으로, 한송화(1997:45)에서 ‘불구동사’와 ‘동사의 굳은형’으로, 강미진(2008:6)에서 ‘일반적 불완전용언’과 ‘제한적 불완전용언’으로, 박현정·김정남(2010:345)에서 ‘제약 활용형’과 ‘특수 활용형’으로 명명하였다.

10) 음운론 연구자들은 통사적 제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활용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형태론 연구자나 통사론 연구자들은 이미 충분한 관심을 진작에 가져왔으며, 그런 대표적인 논의로 유현경(1996), 김영옥(1994), 한송화(1997) 등이 있다.

나. 아오(알+-오), 아오니, 아오며, 아마

(13)의 예에 대해서는 김성규(1989:161-164)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가장 최근까지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13) 가의 ‘푸고, 푸니, 피, 피도, 피서’와 같은 활용 패러다임에서 ‘피, 피도, 피서’와 같은 활용형을 분석할 수 있느냐 논란거리였다. 활용형 ‘피’는 ‘푸-어’로 분석하게 된다면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형 ‘피’ 자체를 어휘부에 등재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피’를 ‘프+어’로 분석하여 자음 어미 앞에서는 ‘푸-’가, 모음 어미 앞에서는 ‘프-’가 선택되는 복수기저형으로 처리하는 입장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시적인 기술이 가능하다면 어휘부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복수기저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더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sup>11)</sup>

(13) 나의 ‘아오’에 대해서 채현식(1994:71)에서는 ‘알+-오’가 결합하여 ‘\*아로’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진호(2002:50)에서 ‘어간 기저형 ‘아’의 출현 환경을 규칙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오, 아오니, 아오며, 아마’의 활용형 자체를 어휘부에 등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아오-’의 활용형에 대하여 신승용(2007:99)에서는 어휘부 등재를 수긍하면서도 등재 방식에 있어서는 ‘아오(X), 아마’와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오, 아오니, 아오며, 아마’가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등재 방식이나 등재 단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김현(2013:352)에서는 ‘아오-’나 ‘피-’를 활용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오-’나 ‘피-’를 어휘부에 등재하게 된다면 이는 언어학적 단위로서의 지위가 분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이에 후행하는 요소와 결합 과정이 공시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활용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사 어간 ‘아오-’로 분석하게 되면 특정한 어미 ‘-니, -며, -마’와만 결합하는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이므로, (11)

11) 이진호(2008:214)에서는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선택되는 어간 기저형으로 ‘피’가 가장 타당하다고 하였다. 기저형 ‘프’는 한국어의 형태소구조조건을 어긴다는 점과 일부 방언에서 어간 재구조화에 의해 ‘피고, 피니, 피’의 활용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의 예와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13나)'는 (11)과 같이 어휘부에 등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지도 모른다. 결국 (13나)'가 어휘부에 등재하게 되더라도 '아오-'와 같은 방식의 등재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어휘부 등재 여부와 관련하여 2장에서 형태적인 제약을 갖는 예들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흘루구, 흘르지 ; 흘르니, 흘르믄 ; 흘러(流) <경기>
- (2) 가시고, 가시지 ; 가시니, 가시면, 가셔도, 가셔#, 가셔요~가세요
- (3) 나. 허고(허+고), 허서(허+어서), 히라(히+어라), 혀# <화순>  
다. 매:구, 매:지 ; 매:니, 매:면 ; 매:두, 매:라, 매:요, 먀# <중부>

(1)의 예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어미 '-구'일 때만 어간 이형태가 '흘루-'로 나타나고 기타의 어미일 때는 어간 이형태가 '흘르-'로 나타난다. 활용형 '흘루구'는 단일한 어간 기저형 '흘르-'에서 공식적인 규칙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김봉국(2003)에서는 복수기저형을 설정한 바 있으나, 여타의 복수기저형과는 달리 '흘루-'가 어미 '-구'와만 결합하는 분포상의 편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불완전활용과 마찬가지로 활용형 '흘루구' 자체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런 점은 (6)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사 어간 '가시-'의 패러다임에 서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정한 어미 '-어요'가 결합했을 때는 활용형 '가세요'가 실현된다. 유사 어간 '가시--+어요'가 결합하여 y 반모음화에 의해 '가셔요'가 되고, 다시 '에' 축약에 의해 '가세요'가 되었다고 기술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에' 축약이 해당 방언에서는 공식적인 규칙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과 '가세요'만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음운규칙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규칙이 인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미 '-어요'와만 결합하는 '-(으)세요'는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볼 수 있다.

(3나)와 (3다)의 예는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중, 반말체 종결어미와의 결합형에서만 활용형이 달리 나타난다. (3나)의 활용형 '혀:'와 (3다)의 활용형 '먀:'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 방식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음운규칙의 적용 양상에서 차이나는 것으로 기술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활용형 '혀:'와 '먀:'를 어휘

부에 등재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어휘부 등재 방식은 이진호(2008:145-170)에서 언급한 공시적 기술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기술 방식이면서 어휘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방식이다.

## 5. 결론

이 글은 한국어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활용형을 대상으로 음운론 연구에서 진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첫째 한국어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공시론적 음운현상의 기술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음운론적 환경의 정밀화 문제를 미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둘째 활용형들의 집합인 패러다임의 양상과 패러다임의 체계 문제를 다루었으며, 셋째 불완전 활용 양상을 고려했을 때, 활용형이나 활용형 이상의 큰 단위에서의 어휘부 등재 문제를 논의하였다.

## 〈참고문헌〉

- 강미진(2008), 『현대 국어 불완전 용언의 활용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국(2003), 『복수기저형의 유형 (1) - 형성 요인의 관점에서』,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165~199면.
- 김봉국(2004), 『국어사와 방언 지식을 통한 국어문법교육의 한 방향』, 『어문연구』 1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3~376면.
- 김봉국(2010), 『상항이중모음화에 대하여』, 『최명옥 선생 청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435~450면.
-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159~164면.
- 김영선(2010), 『국어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 연구』, 『동남어문논집』 30, 동남어문학회, 77~97면.
- 김영선(2013), 『국어 활용형과 통시적 정보』, 『우리말연구』 33, 우리말학회, 33~55면.
- 김영욱(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87~109면.
- 김 현(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국어학』 37, 국어학회, 85~113면.
- 김 현(2013), 『어휘부와 국어음운론』, 『국어학』 66, 국어학회, 335~360면.
- 박현정·김정남(2010),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용언의 제약 활용형과 특수 활용형 연구』, 『진단학보』 109, 진단학회, 345~368면.
- 박형진(2009), 『‘문법적 언어’에 대한 고찰』,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0-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1~57면.
- 송철의(2001), 『국어의 형태론적 특질』,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1~21면.
- 신승용(2007), 『사전(lexicon)과 복수기저형 및 활용형』,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75~104면.

- 안소진(2012), 「어휘부 등재 논의의 경향과 쟁점」, 『형태론』 14-1, 1~23면.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경(1996), 「국어형용사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호(2002), 「화석화된 활용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27~57면.
-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 임석규(1999), 「영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석규(2004),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1~23면.
- 임석규(2012), 「활용형의 변화에 대한 생성문법적 접근 - 김현(2006)에 대하여-」, 『형태론』 14-1, 73~90면.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현식(1994),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2000), 「중국어연변지역의 한국어 연구」, 『한국문화』 2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7~62면.
- 최전승(1997), 「용언 활용의 비생성적 성격과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 현상」,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논총)』, 태학사, 1207~1259면.
- 한송화(1997), 「활용형에 제약이 있는 동사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연구』 7, 연세대언어정보개발원, 43~78면.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어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활용형을 대상으로 음운론 연구에서 진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첫째 한국어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공시론적 음운현상의 기술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음운론적 환경의 정밀화 문제를 미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둘째 활용형들의 집합인 패러다임의 양상과 패러다임의 체계 문제를 다루었으며, 셋째 불완전 활용 양상을 고려했을 때, 활용형이나 활용형 이상의 큰 단위에서의 어휘부 등재 문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활용형, 어간, 어미, 패러다임, 어휘부, 불완전 활용

【Abstracts】

## Conjugated form and phonology

Kim Bong-gook

This is a phonological study on conjugated form combined stem with ending in Korea. The issues that we have with here are three problems.

firstly, we focused on microscopically on densification matters of phonological environment in synchronic study, secondly, we discussed paradigm aspect and paradigm system matters, they are set of conjugated form. thirdly we focused a discussion on lexicon registration of high unit in conjugated form and not fewer than conjugated form, in consideration imperfect conjugation.

Key words: conjugated form, stem, ending, paradigm, lexicon, imperfect conjugation

이 논문은 2015년 7월 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